

13. 2023. 6. 26. 월. 15시까지 안개꽃 이해인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서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창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 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14. 2023. 6. 26. 월. 15시까지 꽃 김요섭 손을 대도 데지 않는다. 그 불은 이슬이 떨어지면 더욱 놀라는 그 불은 태고적 이야기에 향기를 입힌다. 그 불은 태양도 꺼트리지 못한 이슬의 그 불은 별빛 씨 땅 위에서 눈을 떴다. 그 불은 꽃.
15. 2023. 6. 26. 월. 15시까지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16. 2023. 6. 26. 월. 15시까지 삐꾸새 권정생 삐꾸새야 삐꾸새야 삐꾸삐꾸 울어 주면 발을 매는 우리 엄마 허리 허리 덜 아프고 삐꾸새야 삐꾸새야 삐꾸삐꾸 울어 주면 먼 길 가신 아버지가 걸음 걸음 가벼웁고